

간호대학 신입생의 걱정, 교수지지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경숙¹ · 김동원² · 김희진³

^{1,2}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³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Worry and Professor's Support on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Kyeong Sook, Jeong¹ · Dong Won, Kim² · Hee Jin, Kim³

^{1,2}*Department of Nursing, Bus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Bus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worry and professor support on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127 freshman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located in B City from June 2 to June 13, 202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3.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the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 The mean scores (on a 5-point scale) were 2.91 for worry, 3.56 for professor support, and 3.83 for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worry ($r = -.27, p = .002$) and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fessor support ($r = .45, p < .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and professor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explaining 43.0% of the variance. **Conclusion :**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programs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nhance freshman'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their major.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professors' counseling and student-support skill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Retention, Facul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2021년 7.0%에서 2025년에는 7.4%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이렇듯 재학생의 학업 중도 탈락률 증가는 대학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재학생의 학업 중단 가속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2]. 이에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학업지속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3].

학업지속은 개인이 특정 교육기관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3,4].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자기 가치의 확인과 향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미래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업적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학생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5,6].

대학생들이 학업지속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시점은 주로 신입생 시기로[2] 개인의 흥미나 적성, 학업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진로 결정 및 자율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학업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7,8]. 특히,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 및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적·정서적 소진으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9,10].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간호인력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0]. 그러므로 대학 생활 초기에 간호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걱정은 단순한 정서적 불안과 달리,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반복적이고 통제하기 어렵게 일어나는 인지적 평가 과정이다[11]. 이는 생리적 각성이나

감정적 고통을 동반하는 정서적 반응과 구별되는 인지적 차원의 불안으로[12], 주의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작업기억 용량을 감소시켜 인지 조절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13,14]. Wells[15]의 메타인지 모델에서는 걱정을 1형과 2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형 걱정은 ‘미래에 닥칠 위험을 걱정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설적인 메타인지적 신념과 관련된 대처 노력의 한 유형이며, 2형 걱정은 걱정에 대한 걱정으로, ‘메타 걱정’이라고 하며 걱정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나 평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개인의 안정감을 약화시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사건 자체에 대처하려는 ‘1형 걱정’을 넘어 걱정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2형 걱정’이 개입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행동적 부적응이 증폭된다[15,16]. 특히 과중한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부정적 감정의 과도한 걱정은 학업 수행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진로 갈등이나 학업 포기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4,1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걱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교수 지지는 교수자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 학생이 교수로부터 제공받는다 고 인식하는 긍정적인 자원과 도움을 의미하며[18], 학생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인적 환경 요인이다[19]. 대학생이 새로운 환경과 학업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교수의 지지는 교육과 관련된 학습동기와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18], 학습몰입을 높이고 전공 만족도가 상승되어 그 결과 학업지속의향을 향상시키게 된다[3]. 최근 대학 차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수 자원에 의한 지지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의

향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는 전공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10], 교수와의 상호작용, 전공적성 및 진로 부합도[20]이 확인되었으나 신입생들의 걱정을 영향 요인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전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걱정, 교수 지지, 학업 지속 의향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걱정, 교수 지지 및 학업지속의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걱정, 교수 지지 및 학업지속의향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신입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고, B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 신

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한 예상 표본수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회귀분석 표본 크기 유의수준 .05, Cohen[21]이 제시한 중간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8개로 설정하였을 때 109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3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한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27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걱정

걱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Meyer 등[22]이 개발하고, Jeon 등[23]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펜실베니아 걱정증상도구(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등[2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교수 지지

교수 지지는 Kim 등[18]이 Noltan[24]의 도구 중 교수 지지에 대한 문항을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Jang과 Kim[3]이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8]이 수정·보완한 당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 학업지속의향

학업지속의향은 Shin[25]이 개발하고 Moon[26]이 변안하고 Jang과 Kim[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32	25.2
	Female	95	74.8
Age(year)	≤19	64	50.4
	20~24	28	22.0
	25~29	16	12.6
	≥30	19	15.0
			23.85±9.30
Religion	Yes	35	27.6
	No	92	72.4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	Aptitude and interest	41	32.3
	The entrance examination score	2	1.6
	I got a job after graduation	67	52.8
	Invitation from parents or relatives	17	13.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69	54.3
	Moderate	43	33.9
	Dissatisfaction	15	11.8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64	50.4
	Moderate	43	33.9
	Dissatisfaction	20	15.7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percentages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본 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간호학과 1학년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 목적, 내용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대상자가 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여부가 학업 성적이나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반 대표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개별 봉투에 담긴 완료된 설문지를 반 대표가 수

거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 23.0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걱정, 교수 지지, 학업지속의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인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지속의향 간의 분포 차이는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있어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였다. 걱정, 교수 지지, 학업지속의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Degrees of Worry, Professor's Support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N=127)

Variables	Range	M $\pm$ SD
Worry	1~5	2.91 $\pm$ 0.77
Professor's support	1~5	3.56 $\pm$ 0.79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1~5	3.83 $\pm$ 0.80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M $\pm$ SD	t or F (p) Scheffe's
Gender	Male	3.87 $\pm$ 0.84	0.29
	Female	3.82 $\pm$ 0.79	(.776)
Age(year)	≤ 19	3.74 $\pm$ 0.81	2.11
	20~24	3.70 $\pm$ 0.70	(.103)
	25~29	4.09 $\pm$ 0.90	
	≥ 30	4.14 $\pm$ 0.75	
Religion	Yes	3.83 $\pm$ 0.87	-0.01
	No	3.84 $\pm$ 0.78	(.991)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4.11 $\pm$ 0.76	3.17 (.027)
	The entrance examination score	3.41 $\pm$ 0.35	
	I got a job after graduation	3.76 $\pm$ 0.80	
	Invitation from parents or relatives	3.50 $\pm$ 0.7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4.23 $\pm$ 0.66	33.36
	Moderate ^b	3.54 $\pm$ 0.64	(<.001)
	Dissatisfaction ^c	2.87 $\pm$ 0.66	a>b>c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a	4.27 $\pm$ 0.59	37.86
	Moderate ^b	3.62 $\pm$ 0.68	(<.001)
	Dissatisfaction ^c	2.92 $\pm$ 0.69	a>b>c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with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orry and Professor's Support (N=127)

Variables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r(<i>p</i>)
Worry	-.27 (.002)
Professor's support	.45 (<.001)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in Participant (N=127)

Variables	B	SE	β	t	<i>p</i>	Tolerance	VIF
(constant)	2.37	0.26		9.08	<.001		
College life satisfaction [†] (Satisfaction)	0.87	0.20	.55	4.41	<.001	0.30	3.39
College life satisfaction [†] (Moderate)	0.50	0.17	.30	2.90	.004	0.44	2.30
Major satisfaction [†] (Satisfaction)	0.38	0.14	.24	2.79	.006	0.62	1.61
Professor's support	0.18	0.08	.18	2.37	.020	0.78	1.28

F=24.76, (*p*<.001), R²=.45 Adjusted R²=.43, Durbin-Watson=1.831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Reference: College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이 74.8%였으며 평균 나이는 23.85세였고 대상자의 72.4%는 종교가 없었다.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54.3%,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하는 대상자가 50.4%로 확인되었다(Table 1).

2. 걱정, 교수 지지, 학업지속의향 정도

대상자의 걱정 평균평점은 2.91±0.77점, 교수 지지 평균평점은 3.56±0.79점이었으며, 학업지속의향 평균 평점은 3.83±0.80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은 전공 선택동기(F=3.17, *p*=.027), 전공 만족도(F=33.36, *p*<.001), 대학생활 만족도(F=37.86,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사후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만족’ 군이 ‘보통’ 군보다, ‘보통’ 군이 ‘불만족’ 군보다 학업지속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걱정, 교수 지지, 학업지속의향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은 걱정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r*=-.27, *p*=.002), 교수 지지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5, *p*<.001)로 나타났다. 즉, 걱정은 낮을수록, 교수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5. 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업지속의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선택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더미 처리한 후, 연구 독립변수인 걱정, 교수 지지와 함께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3으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295~0.779로 0.1 이상이며 VIF가 1.283~3.39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0.23, 첨도는 0.59로 모두 절대값의 한계치(왜도 2 미만, 첨도 7 미만) 이내에 수렴하여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잔차 산점도를 통해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한 결과, 예측값에 따른 잔차의 분포가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0을 중심으로 무작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형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중 대학생활에 ‘만족’ 군이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beta = .55, p < .001$), 다음으로는 ‘보통’ 군이 영향을 미쳤다($\beta = .30, p = .004$). 또한, 전공 만족도($\beta = .24, p = .006$)와 교수 지지($\beta = .18, p = .020$)가 학업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5), 이는 총 43.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F = 24.76,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걱정, 교수 지지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걱정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91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Oh와

Jeong[17]의 연구 결과, 3.12점보다 낮았으며,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27]의 연구 결과, 3.1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1학년에는 전공 교과보다는 교양 교과목과 기초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입생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공에 대한 부담감이나 임상실습과 교과목 학습의 병행, 취업 등의 부담감이 적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교수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6점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Chae[28]의 연구 결과 3.69점과는 비슷하였으나 같은 도구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8]의 연구 결과 3.16점보다 높았다. 교수 지지는 교수자가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이라고 지각하는 긍정적 자원이다[29]. 한국간호교육평가원[30]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학생들의 학과 적응과 진로 개발을 위해 입학 시부터 생활과 진로, 학업에 대한 정기적, 비정기적인 면담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학업지속의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83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10]의 3.92점과 비슷하였으며, 다른 도구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im과 Kim[31]의 연구 결과, 3.7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계열의 경우 전공선택이 곧 진로 결정으로 이어져 비보건의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가치관이 뚜렷하고 향후 진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진로 고민과 취업 스트레스 등이 낮아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7]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은 전공선택 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 분석 결과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학업지속의향은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만족’ 군이 ‘보통’ 군보다, ‘보통’ 군이 ‘불만족’ 군보다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취업이 용이해서, 성적이나 주변 권유로 간호학과

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0,17,28]. 그러나 간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간호사의 역할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32]. 그러므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학년 때부터 교과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 학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래 직업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공 및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학업지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보건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전공이나 대학 생활 적응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민하게 된다[33]. 현재 많은 대학에서 입학 초기에 학생의 부적응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대학 생활 적응이나 전공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만을 제공할 뿐, 꾸준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 및 대학생활에 질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지속의향은 걱정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걱정과 학업지속의향과의 관계는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부정적 감정의 과도한 걱정이 지속되면 학업적인 부분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고[17], 이는 곧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의지를 약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걱정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하여 대학 내 상담 센터나 외부 전문 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효율적인 체계 운영을 통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업지속의향은 교수 지지와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30]에서는 교수에게 학생들과 학업, 생활, 진로 등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의 학업적 상황뿐 아니라 성장과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34] 학생들의 학업적, 정서적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만족), 대학생활 만족도(보통), 전공 만족도(만족)와 교수 지지가 확인되었으며, 학업지속의향에 대한 이들의 총 설명력은 43.0%였으며 걱정과 전공선택동기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0,20],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3,35,36]와 부분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먼저, 대학생활 만족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신입생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이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대 및 요구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일치한다면 대학에 만족하게 되고, 이는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고 학업에 더욱 매진하게 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37]. 그러므로 대학은 입학 전 신입생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입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전공만족은 학생 개인이 정한 기준과 비교해서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며[38], 이는 자신의 진로, 미래 직업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39]. 전공만족이 높다는 의미는 학생이 가진 기대가 전공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충족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속적으로 기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3]. 또한, 전공만족은 교과 내용과 함께 전공에서의 관계나 사회적 인식의 영향 등을 포함하게 되므로, 신입생부터 간호학문에 대한 기대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학과 현실과 사회적 현실 여건과의 차이점 확인을 통하여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차원의 다양한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더하여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입생들에게는 전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지도와 다양한 체험, 전공 학습과 관련된 로드맵 등과 같이 명확하고 체계적인 안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지지가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 연구[40]의 결과와 같았다. 즉, 교수와의 관계, 학생에 대한 관심과 태도, 그리고 상담이나 상호작용에 만족할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아지므로[20] 교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기적, 비정기적 학생 상담을 통해 교수가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 학업지속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질과 함께 어떠한 요인이 교수 지지 만족감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걱정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과 대상자 50% 이상이 대학생활과 학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학생활 만족이나 전공만족, 교수 지지와 같은 긍정적 심리나 사회·환경적 요인이 학업지속의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부정적 요인인 걱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다만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여주기 위해 대학생활 만족이나 전공만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걱정, 교수 지지가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만족), 대학생활 만족도(보통), 전공 만족도(만족)와 교수 지지가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전공만족도 증진을 위한 진로 및 전공 이해 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상담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걱정이 학업지속의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로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시기가 신입생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신입생의 걱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또는 전공만족도 등의 매개효과 및 중단적 변화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걱정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고학년의 경우에도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년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일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Key findings of the 2025 basic education statistic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5 [cited 2025 August 28]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3992>
2. Lee EJ, Lee JH.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predicting student departure of freshmen: fo-

- cusing on the case of S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4):317-330.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317>
3. Jang HB, Kim J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s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engagement,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of junior college freshme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23;42(6):25-51.
<https://doi.org/10.37210/JVER.2023.42.6.25>
 4. Jung TH, Implications of student retentio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the period of student attri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02;21(2):327-342.
 5. Jeon BR, Kim J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5;21(3): 53-83.
 6. Kim SY. An analysis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support programs effecting on student reten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7;20(1):111-141.
 7. Lee DB, Kim JY, Song BH, Park JH.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persistence of students in health-related field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22;26(3):93-104.
<https://doi.org/10.14408/KJEMS.2022.26.3.093>
 8. Chun SJ, Kim Y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tudent adjustment test(SAT) I · II based on Tinto's 『Separation-transition-Integr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1;8(2):235-262.
<http://doi.org/10.16983/kjsp.2011.8.2.235>
 9. Cha SK, Lee EM.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 650-658.
<http://doi.org/10.5977/jkasne.2014.20.4.650>
 10. Lim KS. The impact of major satisfaction,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ies among new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2024;9(5):169-174.
<http://doi.org/10.31152/JB.2024.10.9.5.169>
 11. Borkovec TD, Ray WJ, Stöber J. Worry: a cognitive phenomenon intimately linked to affective, physiological, and interpersonal behavioral process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98;22(6):561-576.
<https://doi.org/10.1023/A:1018790003416>
 12. Bonaccio S, Reeve CL, Winford, EC. Text anxiety on cognitive ability test can result in differential predictive validity of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2;52(4):497-502.
<https://doi.org/10.1016/j.paid.2011.11.015>
 13. Brodish AB, Devine PG. The role of performance-avoidance goals and worry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 threa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09;45(1):180-185.
<https://doi.org/10.1016/j.jesp.2008.08.005>
 14. Trezise K, Reeve RA. Working memory, worry, and algebraic 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014;121:120-136.
<https://doi.org/10.1016/j.jecp.2013.12.001>
 15. Wells A. Metacognitive theory and therapy for worr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review and statu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pathology. 2010;1(1): 133-145.
<https://doi.org/10.5127/jep.007910>
 16. Bahrami F, Yousefi N. Females are more anxious than males: a metacognitive perspective.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2011;5(2):83-90.
 17. Oh EJ, Jeong KS.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worry on adjusting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

- tion Society. 2021;22(11):110-118.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110>
18. Kim KH, Na MG, Kwon JH. Verification of a relational model among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4;15(1):45-69.
<http://doi.org/10.15753/aje.2014.15.1.003>
19. Jeong EI, Park YH.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8;9(1):73-93.
<http://doi.org/10.15753/aje.2008.9.1.004>
20. Kim SY, Kim B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among freshmen in the nursing department: focusing on the case of one college.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2024;10(3):503-514.
<http://doi.org/10.47116/apjcri.2024.03.35>
21. Cohen J,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992;112(1):155-159.
<https://doi.org/10.1037/0033-2909.112.1.155>
22. Meyer TJ, Miller ML, Metzger RL, Borkovec T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90;28(6):487-495.
[http://doi.org/10.1016/0005-7967\(90\)90135-6](http://doi.org/10.1016/0005-7967(90)90135-6)
23. Jeon JW, Kim DH, Kim EK, Roh SW.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Anxiety and Mood*. 2017;13(2):86-92.
<https://doi.org/10.24986/anxmod.2017.13.2.005>
24. Nolten PW.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issertation]. Milwauke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4. p. 1-360.
25. Shin N. Transactional presence as a critical predictor of success in 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2003;24(1):69-86.
<https://doi.org/10.1080/01587910303048>
26. Moon SJ.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of vocational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angmyung University; 2015. p. 1-97.
27. Kim JH, Lee HJ.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r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22;30(6):61-79.
<https://doi.org/10.18230/tjye.2022.30.6.61>
28. Choi YH, Chae MJ.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8):419-43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8.040>
29. Kim MJ.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 [dissertation]. Mokpo: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9. p. 1-109.
30.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for nursing education [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1.12.31. [cited 2024 May 28] Available from:<https://www.kabone.or.kr/upload/goodFile/120240528095630.pdf>
31. Sim JM, Kim JS.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structional quality, student engagement,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in offline and online university lectur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23;29(2):279-299.
<https://doi.org/10.24159/joec.2023.29.2.279>
32. Mazzotta R, Durante A, Bressan V, Cuoco A, Vellone E, Alvaro R, et al. Perceptions of nursing staff and students regarding attrition: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 Scholarship. 2024;21(1):1-13.
<https://doi.org/10.1515/ijnes-2023-0081>
33. Hwang SY. Explo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cademic persistence in university students who suffered a dropping-out crisi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20;26(2):327-352.
<https://doi.org/10.24159/joec.2020.26.2.327>
34. Song SS, Ham HJ. Converged influence of professor support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12(3): 225-235.
<https://doi.org/10.15207/JKCS.2021.12.3.225>
35. Lee YM.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rofessor support, self-determining motivation to learn, flow-in-learning, and intent-to-persist for learning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2019;6(4):95-105.
<http://doi.org/10.20496/cpew.2019.6.4.95>
36. Seo YJ. The effect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major commit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learning persistence by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2017. p. 1-81.
37. Park HJ, Han YS, Kim MS.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18(4): 567-580.
<http://doi.org/10.18205/kpa.2013.18.4.005>
38.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39. Park SK, Lee HS.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2016;12(1):219-235.
40. Park MR, Park ES, Je NJ.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6;12(1):801-815.
<https://doi.org/10.17703/JCCT.2026.12.1.801>